

2020년 7월 9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코로나 확산 불안 심리 Vs. 경기 회복 기대 커들로, “현재 데이터는 강력한 V자형 경기 회복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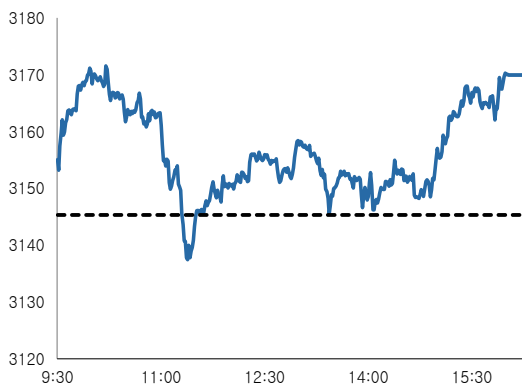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실적 개선 기대되는 기술주 강세

미 증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6 만명을 넘어서자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하기도 했으나 또 다른 경제 섣다운 우려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하기도 했음. 이런 가운데 커들로 위원장이 V 자형 경기 회복을 언급하자 반등에 성공. 여기에 장 마감 앞두고 트럼프가 경제가 빠르게 정상화 된다고 주장하자 비 언택트 관련 종목의 상승폭이 확대된 점도 특징(다우 +0.68%, 나스닥 +1.44%, S&P500 +0.78%, 러셀 2000 +0.81%)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6 만명을 넘어서는 등 우려가 확산. 지난 7 일간 하루 평균 51,383 명을 기록해 일주일전 대비 24.5% 급증. 그렇지만 최근 확진자 증가 수는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4 개 주가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일부 지역의 확산이 영향을 줬다는 점, 사망자 수는 아직은 안정적인 점 등을 기반으로 우려가 확산되지는 않음. 이런 가운데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 월 22 일 2 차 팬더믹은 없다고 언급한 데 이어 오늘은 “일부 지역에서 증가할 뿐”이라며 최근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음. 더 나아가 “현재의 데이터는 강력한 V 자형 경기 회복을 시사” 하고 있다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이러한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매물이 출회 되던 미 증시는 재차 반등

한편, 파우치 소장 등은 낮은 사망률에 안도할 수 없으며 신규 확진자 발생 후 2~5 주 후 사망자가 증가했던 점을 감안 7 월 중, 후반 추이를 지켜 봐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우려가 지속. 여기에 일부 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증가하던 미국의 드라이빙 등의 추이가 코로나 확산으로 재차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자 미 증시 상승은 제한되기도 했음. 그렇지만, 장 마감 앞두고 트럼프가 고용과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자 금융, 항공, 소매업종 등 장중 하락하던 기업들이 상승 전환하는 등 심리 안정을 보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158.88	-0.24	홍콩항셍	26,129.18	+0.59	
KOSDAQ	765.96	+0.90	영국	6,156.16	-0.55	
DOW	26,067.28	+0.68	독일	12,494.81	-0.97	
NASDAQ	10,492.50	+1.44	프랑스	4,981.13	-1.24	
S&P 500	3,169.94	+0.78	스페인	7,326.40	-1.62	
상하이종합	3,403.44	+1.74	그리스	641.07	-0.47	
일본	22,438.65	-0.78	이탈리아	19,899.53	-0.5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언택트 관련주 상승

애플(+2.33%)은 도이체방크가 저점 대비 66%나 급등 했으나 여전히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상향조정(380달러→400달러) 하자 강세를 보였다. 넷플릭스(+1.95%)는 밸류에이션은 부담이나 여전히 언택트 영향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며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아마존(+2.70%), 디즈니(+2.67%) 등 스트리밍 회사는 물론 NVIDIA(+3.49%)도 강세를 보였고, 서비스나 우(+3.27%) 등 소프트웨어 회사, 줌비디오(+1.61%) 등 언택트 수혜주들도 상승했다. 니콜라(+34.30%)는 JP모건이 45달러 미만에서는 장기 투자자에게 긍정적이라며 투자의견을 Overweight 으로 상향 조정하자 지난 5일간의 급락을 뒤로하고 급등했다.

리바이스(-8.32%)는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62% 감소한 가운데 15%의 고용을 삭감한다고 발표 하자 급락했다. 보험사인 올스테이트(-4.78%)가 4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내셔널 제너럴 보험(+65.80%)은 급등 했으나 올스테이트는 비용부담으로 하락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택 건설 회사인 테이론 모리슨(+16.91%)은 6월 판매 건수가 전년 대비 94% 급증 했다고 발표하자 급등했다. KB홈(+5.79%), 레나르(+5.44%), 플루트(+3.98%) 등 여타 건설회사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10%	대형 가치주 ETF(IVE)	+0.17%
에너지섹터 ETF(OIH)	+0.47%	중형 가치주 ETF(IWS)	+0.37%
소매업체 ETF(XRT)	+1.23%	소형 가치주 ETF(IWN)	+0.36%
금융섹터 ETF(XLF)	+1.05%	대형 성장주 ETF(VUG)	+1.24%
기술섹터 ETF(XLK)	+1.61%	중형 성장주 ETF(IWP)	+1.4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89%	소형 성장주 ETF(IWO)	+1.16%
인터넷업체 ETF(FDN)	+2.13%	배당주 ETF(DVY)	-0.05%
리츠업체 ETF(XLRE)	-0.06%	신흥국 고배당 ETF(DEM)	+1.35%
주택건설업체 ETF(XHB)	+2.1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16%
바이오섹터 ETF(IBB)	+0.54%	미국 국채 ETF(IEF)	-0.16%
헬스케어 ETF(XLV)	+0.01%	하이일드 ETF(JNK)	+0.25%
곡물 ETF(DBA)	+0.37%	물가연동채 ETF(TIP)	-0.18%
반도체 ETF(SMH)	+1.43%	Long/short ETF(BTAL)	+0.1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75.17	-0.11%	-4.28%	-18.70%
소재	361.99	-1.46%	+2.02%	-2.42%
산업재	579.78	-0.03%	-0.21%	-7.45%
경기소비재	1,106.19	+1.53%	+5.21%	+3.83%
필수소비재	612.46	-0.21%	+1.85%	-0.82%
헬스케어	1,186.27	+0.02%	+1.58%	-0.77%
금융	385.14	+1.05%	-0.09%	-11.04%
IT	1,894.65	+1.60%	+2.96%	+5.39%
커뮤니케이션	188.77	+0.93%	+4.94%	+0.62%
유틸리티	292.01	+0.89%	+1.76%	-5.99%
부동산	217.69	-0.16%	+0.60%	-6.0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선물 동향에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5%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2.52%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92.5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로 부담이 되기는 했으나,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표명한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과 목표주가 등이 상향 된 IT 기업들의 힘으로 강세를 보였다. 그렇지만 대형 IT 기업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의 경우 장중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 투자심리가 낙관적인 모습은 아니다. 물론 장 마감 앞두고 대부분 상승전환 했으나 폭은 제한 되었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6 만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매물이 출회된 점을 감안 관련 우려는 어느정도 선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경기 회복을 주장한 미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미 증시가 랠리를 펼쳤다는 점을 감안 국내 증시의 강세가 예상된다.

특히 미 증시의 특징이 견고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에 대한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이어지며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 한국 증시에서도 실적 개선 기대 되는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옵션 만기일을 맞아 개별 주식선물 미결제량이 높기 때문에 개별 주식선물의 매도차익 청산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관련 종목 변화가 기대 된다. 물론 전반적으로 시장은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 변화가 예상될 수 있어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이 오늘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10 시 즈음 보통 뉴스에 나오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수 추이와 10 시 30 분 이후 중국 증시의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이슈가 최근 한국 증시 변화의 주된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 약세 지속

국제유가는 지난 주 원유 재고가 280 만 배럴 감소 예상과 달리 565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나 상승 했다. 같이 발표된 가솔린 재고가 484 만 배럴 감소해 예상치인 30 만 배럴 감소를 크게 상회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는 수요 증가 기대를 높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 확산이 증가하자 상승은 제한 되었다.

달러화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증 하는 등 우려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커들로 위원장이 미국 경제가 V 자형으로 회복된다고 발표하자 미 증시의 랠리로 달러 수요가 약화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파운드화는 영국 재무장관이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세금 삭감과 실업 구제 금융을 언급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 만명을 넘어서는 등 기록적인 급증을 보였으나 미증시가 랠리를 이어가자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 한편, 1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43 배)을 상회한 2.62 배를 기록했고 간접 입찰 또한 12 개월 평균(59.8%)을 상회한 63.4%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증가한 점도 국채금리 상승을 제한 했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도 코로나 재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부양정책 및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0.90	+0.69	+4.15	Dollar Index	96.473	-0.42	-0.74
브렌트유	43.29	+0.49	+3.00	EUR/USD	1.1333	+0.52	+0.73
금	1,820.60	+0.59	+1.12	USD/JPY	107.26	-0.24	-0.20
은	19.161	+2.47	+2.81	GBP/USD	1.2616	+0.59	+1.13
알루미늄	1,665.00	+1.90	+2.71	USD/CHF	0.9381	-0.46	-0.81
전기동	6,232.00	+0.71	+2.82	AUD/USD	0.6985	+0.55	+1.01
아연	2,131.00	+2.95	+4.38	USD/CAD	1.3508	-0.70	-0.58
옥수수	346.25	+0.80	+1.39	USD/BRL	5.3368	-0.84	+0.32
밀	516.50	+4.29	+5.03	USD/CNH	6.9986	-0.35	-0.98
대두	897.25	-0.58	+1.70	USD/KRW	1195.50	-0.02	-0.66
커피	100.00	-0.30	-0.99	USD/KRW NDF1M	1192.55	-0.35	-0.76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659	+1.97	-1.64	스페인	0.406	-1.50	-9.30
한국	1.375	-1.20	-2.50	포르투갈	0.402	+0.10	-6.60
일본	0.034	-1.20	-1.30	그리스	1.097	-0.80	-7.20
독일	-0.440	-1.10	-4.50	이탈리아	1.200	-0.20	-6.90